



# 월간 청렴 등대 4월호

매달 청렴의 방향을 비추는 안내서

 **청렴의 나무를 심고, 부패의 잡초를 뽑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며 생명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특히 식목일 무렵은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성껏 심은 묘목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듯, 우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 문화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무의 외형적인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건강함'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결국 쓰러지듯, 조직의 성과 뒤에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 우리 마음속에 '청렴'이라는 나무를 다시 한번 깊이 심어봅시다. 일상의 작은 유혹이라는 잡초를 부지런히 솟아내고, 투명함이라는 햇살과 공정함이라는 수분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심고 가꾼 청렴의 묘목은 훗날 양산 시민들에게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울창한 '신뢰의 숲'이 되어 우리 공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조직의 **성과** 뒤에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양·시·공 청렴의 묘목

청렴의 **햇살**

공정의 **수분**



AI



## 2025년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발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월 10일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1995년부터 매년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위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정체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평가기관의 논평(EIU, 25.7.)에 의하면 '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IMD 등)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

(단위 : 점, 국가수, 순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CPI	점수	62.0	63.0	63.0	64.0	<b>63.0</b>
	조사대상국	180	180	180	180	<b>182</b>
	순위	32	31	32	30	<b>31</b>
OECD	회원국	38	38	38	38	<b>38</b>
	순위	22	22	22	21	<b>22</b>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 드라마 속 청렴이야기



tvN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속 송차장의 '갑질'과 '금일봉'  
드라마 속 송차장은 협력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품질 검수를 핑계로 납품을 지연시키며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당황한 하청업체 사장이 주머니에 슬쩍 찢러 넣어주는 금일봉을 받는 순간, 까다롭던 검수 기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합격'이 됩니다.

### (적용점 1)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부패의 시작

> 품질 검수 업무를 사적인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순간, 청렴의 선은 무너집니다.

### (적용점 2)

반복되는 갑질과 부패행위가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

> 한 사람의 일탈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잘못된 학습 효과를 낳아 조직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청렴이 일상이 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